

<P.2>

Thank you for inviting Gyeonggi children's museum in Korea to this valuable place of APCMC
It's such an honor to tell you about Gyeonggi children's museum and a study of our exhibition as a museum director.

<P.3>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make a presentation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ntroduction, second main issue which are process of developing special exhibition at Gyeonggi Children's Museum and research on visitors at Gyeonggi Children's Museum.

Third conclusion and the last is proposal.

<P.4>

한국은 극동아시아에 있는 반도국가로 중국, 일본과 접해있습니다.

South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in Far East Asia, bordered to China and Japan.

<P.5>

저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있는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수도권이라고 하며 1300 만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Gyeonggi-do where Gyeonggi Children's Museum is located is the metropolitan area, having 13 million populations.

<P.6>

한국의 어린이박물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tell you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s museum in Korea

1995 년 삼성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으로 처음으로 체험식 전시를
소개했습니다.

In 1995, Samsung Children's Museum, our country's very first children's museum, presented hands-on exhibition.

<P.7>

2011 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한국 최초, 최대 규모인 3400 평 독립건물입니다.

In 2011, Gyeonggi Children's Museum was built, having the first and the biggest floor space about 11,300 square meters in Korea.

개관 1 년에 65 만명이 방문했고 현재 경기도민의 5/1 이 다녀간 대표적인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오늘날 국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s a representative children's museum, where 650 thousand people visited in the opening year and a fifth of the inhabitants of the Gyeonggi-do visited so far, our museum is being nationally benchmarked.

<P.8>

2015년 한국어린이박물관협의체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20 기관이 참가하면서 박물관학계에서 어린이에 대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Status of children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academic world of museum since 20 organizations participated after launching Korea Children's Museum Council in 2015.

<P.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서 옛날국가였던 기혁전 신라시대의 전시모습입니다.

The left picture shows a special exhibition about Silla, the ancient kingdom of Korea, which was planned by children's museum in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모습입니다.

And the right picture shows a permanent exhibition in Cheongju national museum Children's museum

<P.10>

2016년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성공사례로 경기도내 고양시, 동두천시에 어린이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Because of successful case of Gyeonggi Children's Museum, two children's museums opened this year in Goyang-si and Dongducheon-si, Gyeonggi-do.

<P.11>

이로써 한국은 독립건물의 대형어린이박물관 중 총 5종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This brings that five of large children's museums in Korea ar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향후 세종시국립어린이박물관, 서울국립어린이센터 건립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 한국의 어린이박물관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ince a few cities a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building National Sejong Children's Museum and National Seoul Children's Center, Children's museums in Korea are expected to be revitalized.

<P.12>

지금부터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From now on, I will introduce exhibition of Gyeonggi Children's Museum.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개발과정은 전시계획, 기획개발, 설계제작, 운영평가로 진행됩니다.

Exhibition development progress of Gyeonggi Children's Museum went through in the order of exhibition plan, planning and development, design and production, finally operation and assessment.

<P.13>

특히 전시 계획 시, 주제 선정의 주요 요소로서 관람객 설문조사, 사회적 이슈, 아동가족교육계의 이슈, 아동의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specially when planning exhibition, we synthetically examined visitor survey, social issue, issue in the child-family educational world, children's interest as main components of topic selection.

<P.14>

저희 박물관은 2015년 '조부모'라는 주제의 기획전시를 1년간 개최하였습니다.

In 2015, our museum had held special exhibition of grandparents theme for one year.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현재는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eaking of promotion background,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0 and now is in the rapid process of entering an aged society.

한국 5000만 인구 중 50%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중 13.2%가 고령인구입니다.

Of 50 million populations in Korea, half of them liv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13.2 percent of the metropolitan area residents are aging populations.

<P.15>

한국은 맞벌이 가정이 510만 가구입니다. 그 중의 절반은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ual-income families in Korea reached 5.1 million. Half of these families entrust their children to grandparent's care.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2014년도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가족관람객 중 25%가

조부모동반가족으로 나타나 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As the results of visitor survey at Gyeonggi Children's Museum in 2014, 25 percent of family visitors of which number is not inconsiderable accompanied their grandparents.

<P.16>

그러나 한국은 노인존경심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OECD가 시행한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끝에서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However Korea hit the world's lowest of respect for senior and took third-to-last place among OECD member states in terms of the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사람의 평균수명은 늘어감에 따라 노인부모 부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As the average life span of human has increased, issue of supporting aged parents is on the rise.

우리는 모두 똑같이 늙어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not aware that we are also getting old as the same human being.

가족의 평화, 조부모, 부모의 평화는 아동의 평화에 직결됩니다.

The Peace of family, our grandparents and parents directly affect our children and the next generation.

<P.17>

이러한 사회문제를 기반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Based on such social issues, Gyeonggi Children's Museum planned the above exhibition.

전시제목은 <특별한 친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로, 2015년 10월 2일부터 다음해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hibition was opened from October second, 2015 to August twenty-first, 2016 with title <My Awesome Grandparents!>

<P.18>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시를 위해 유사한 주제를 가진 전시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So we looked into such exhibitions for similar subject.

보스턴 과학관에서는 노화의 과학적 사실과 원리를 소개하는 <노화의 비밀> 이라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Museum of Science, Boston exhibited <Secrets of aging> introducing a scientific fact and principle of aging.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에서는 <시간과의 대화>라는 전시를 기획했으며, 이 전시는 노년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늙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세대간 대화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useum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Frankfurt exhibited <Dialogue with Time>. This exhibition encouraged intergenerational conversation, showing a variety of old age image and reducing fear of aging.

한국 성남의 고령친화체험관에서도 노인용 생활제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Senior-friendly Experience Center in Seongnam Korea is permanently exhibiting household items for the elderly.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위 세 가지 전시선례들을 토대로 세 가지 차별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Gyeonggi Children's Museum obtained three differentiations on the basis of these three exhibition cases.

우리는 보다 친근감을 높이는 일러스트를 연출했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노년 체험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전시물을 구성했습니다.

We directed increasing-friendliness illustration and constructed exhibit to empathize through psychological, physical experience of old age.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서로 간 관계 촉진을 유도했습니다.

Also we promoted development of relat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by collaboration-centric exhibition.

<P.19>

박물관 내 전시기획자, 디자이너, 에듀케이터의 협업 및 어린이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시물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We selected those exhibits as the final choice based on cooperation with exhibition managers, designers, educators and advice from children and experts.

각종 아이템은 흥미도, 교육성, 전시구현 가능성, 매체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ll items are evaluated according to interest, education,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media diversity.

<P.20>

우리는 각 전시물을 4 가지 소재로 분류했습니다.

We categorized each exhibits by four matters.

첫째 관심과 만남, 두 번째 알아가기와 다가가기, 세 번째 교류와 소통, 마지막 관계맺기입니다.

First, interest and meeting, second, know and approach, third, interact and communicate, finally make relationship.

그리고 각 분류에 포함되는 총 전시품은 14 종으로 구성했습니다.

Total exhibits consist of 14 types including all categories.

<P.21>

전시의 공간 배치 예상 이미지입니다.

It's a space arrangement expected image for exhibition.

<P.22>

전시 오픈 이후에는 전시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After exhibition opening, we had several programs connected with exhibition.

STEAM 교육 기반으로 3 세대 통합을 목적으로 한 가족프로그램인 '3 세대 가족도장 만들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법의 빗자루'가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3 세대 가족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There were educational family programs for integration of three-generation based on STEAM education, 'Making three-generation family stamp', 'Grandparents' magic broom' and 'Three-generation family orchestra'.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전통놀이를 시연했고, 강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련된 가족 영상을 상영했으며 박물관 내에는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인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Grandparents rehearsed a traditional play and family video related to grandparents was ran on auditorium. Real grandparent volunteers were arranged inside museum.

더불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가족 이야기를 편지로 받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In addition, there was promotion that received a letter about family story of grandparents.

아울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조부모-손주 동반 가족은 4 인까지 무료입장했으며,

조부모-손주를 동반한 저소득층 가족 역시 무료입장 및 초청행사를 진행했습니다.

Furthermore,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is the culture day.

So free admissions for four people are offered to family accompanied with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nd low-income family accompanied with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as also invited for free.

<P.23>

교육프로그램 홍보용 일러스트입니다.

This is illustration for education program publicity.

<P.24>

전시장 입구입니다.

Here is an entrance of exhibition.

<P.25>

전시장 입구의 그래픽이구요.

This is the graphic of entrance.

<P.26>

전시장 내부 전경입니다.

And it's the view of exhibition place.

지금부터 전시장 내부는 어떤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rom now on let me introduce how exhibits were organized here with photos.

<P.27>

전시장 초입에는 이렇게 닫힌 문이 하나 있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전시를 보게 됩니다.

There is a closed door and you can see the exhibition through opening this door.

우리는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We don't quite know about grandparents unless we live with them.

전시장 앞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전시를 보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조부모에 대한 닫힌 문이 점차 열려 조부모를 파악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pening the closed door and seeing the exhibition contain a meaning that the closed mind about grandparents starts to be opened gradually and understand them.

<P.28>

위쪽의 '조부모 되어보기' 전시물은 노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콧수염, 안경, 지팡이, 가발 등의 소도구를 쓰고 사진을 촬영한 후 노인이 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The upper side of picture is called <'I'm grandfather, grandmother!>.

With this exhibit, you can wear props like a mustache, a glasses, a stick, a wig and so on then take a picture and see you as an aged man.

아래쪽의 '노화' 전시물에서는 시력이 떨어져 녹내장, 백내장을 겪는 노인들처럼 돋보기를 이용해 책을 볼 수 있으며, 손 떨림을 유도하는 장치를 이용해 대형 바늘 귀에 실을 끼워볼 수 있습니다.

And next exhibit is <Grandfather's difficulty> that makes you experience like the aged. You can read a book, putting on reading glasses like the old people who suffer from glaucoma and cataract. Also you can thread a needle with the device which makes a hand tremor.

<P.29>

아래쪽 왼편은 '할머니의 지혜보따리' 입니다. 할머니들은 옛날에 가방 대신 보따리로 물건을 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따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의 속담과 지혜가 보따리 속에 들어있게 만들었습니다.

The left side of the bottom is <Grandmother's wisdom pack>.

In old times, grandmothers wrapped stuff in a cloth instead of using a bag. We imitated and put it into this exhibit, so there are packs including proverbs and wisdom that grandmothers have.

아래쪽 오른편은 '할머니의 보물 상자'입니다. 할머니의 보물함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옛물건과 지금의 물건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원앙새를 가져갔는데 요즘은 반지로 대체되었습니다.

At the right side of the bottom, there's an exhibit called <Grandmother's treasure chest>. You can compare traditional things with the presents through checking out many things in the grandmother's treasure chest.

For example, in Korean traditional marriage, they brought a couple of mandarin duck but now it's replaced by a wedding ring.

<P.30>

위 사진은 '조부모님과 놀이' 전시물입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했던 실뜨기 놀이, 붓글씨 쓰기, 보자기 싸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This photo is the exhibit called <Interesting play>.

Through this exhibit, you can play a cat's cradle, write Korean calligraphy and wrap stuff in a cloth. 이는 모두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 및 활동인데요. 실뜨기 놀이는 실의 양 끝을 서로 연결해서 두 손에 걸로 두 사람이 주고받으며 여러 모양을 만들며 노는 놀이입니다.

All of these are Korean traditional play.

A Cat's cradle is a children's game in which a loop of string is put around and between two people's fingers and they make complex patterns.

붓글씨는 붓을 사용해서 흰 종이 위에 검정의 먹으로 글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Korean calligraphy is an art expressing the beauty of letters on a white paper by using a Chinese ink

그리고 보자기는 '복을 싸두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And a cloth which is used for wrapping has the meaning of packing the fortune.

예부터 소중한 물건을 싸거나, 음식을 덮거나, 선물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보자기는 망토, 앞치마, 머플러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놀이감이기도 합니다.

So it has been used for packing precious things or covering foods or wrapping a present and also become a play material for us as a cape, an apron, a muffler and so on.

보자기 싸기는 옛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자기를 이용해 어떻게 물건을 포장했는지 따라할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Wrapping stuff in a cloth is an exhibit that makes you follow the way how the ancient people wrapped things in a cloth.

<P.31>

왼쪽 위 전시물은 '미디어 게임'입니다. 예술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집 그림들 사이사이에 나무블럭을 연결시키면 사람 이미지가 연결된 나무블럭 위를 거닐며 집을 왕래하는 작품입니다.

The upper side exhibit is <Connect! Media game>, media art work from an artist.

If you piece wood blocks together between houses, then a kid visits houses by walking on a road of wood blocks

그 옆은 '인생 자전거' 전시물입니다. 자전거를 돌리면 앞에 아기가 나타나서 소녀로 성장하며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보는 할머니가 되는 인생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Next picture is an exhibit called <Life bike>.

If you ride this bike you can see one person's whole life from birth to being a grandmother.

As you pedal the bike, one baby emerges and grows up as a girl, then she becomes an adult and gets married, finally she becomes a grandmother who has a grandchild.

마지막은 '송 바람편지' 전시물입니다.

And the final exhibit is <Whoosh~ air tube mail>.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In the old days, Letters were mostly used but email or text message is frequently used in these days. Children can experience writing a letter by this exhibit.

조부모님께 쪽지를 적어서 바람관 입구에 가져다대면 쪽지가 바람에 의해 바람관 끝의 우편함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If you write a letter to your grandparents and put it into a mouth of the wind pipe, then the wind delivers the letter to the mailbox located in the end of the pipe.

<P.32>

이와 같은 전시물로 구성된 <My Awesome grandparents> 전시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홍보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실까요.

Let's see publicity of <My Awesome Grandparents!> exhibition in photographs.

위쪽 편지가 모인 사진이 첫 번째 진행했던 '조부모님께 편지보내기 이벤트'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The upper left photo is the one of 'Send a letter to grandparents' event images.

아이들이 조부모에게 쓴 편지들을 한달동안 공모해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들을 선정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We ran 'send a letter to grandparents' contest for about a month and selected the most touching letters and gave a present to those children writers.

그 편지들을 벽면에 전시한 모습입니다.

Those letters are on the wall display.

그 옆은 개막식 때의 사진입니다.

The upper right photo is from the opening.

개막식 날에는 ‘할머니의 하루’ 인형극과 3세대 마을오케스트라 동아리를 초청하여 음악공연을 선보였습니다.

On the opening day, there were puppet show of ‘A day of grandmother’ and three-generation village orchestra group was invited for music performance.

<P.33>

또한 기획전시 홍보 동영상도 상영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 was a publicity video for special exhibition as well. Let’s watch it for a while.

<P.34>

전시가 진행될 동안에는 전시 관람객에게 응답을 받아 관람객 반응 연구를 최종적으로 진행했습니다.

During exhibition we conducted visitors’ response research, surveying exhibition visitors.

2016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5주간 전시장 출구에서 가족관람객 100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We interviewed 100 family visitors at the exit of exhibition center for 5 weeks from April second, 2016 to April thirtieth, 2016.

우리는 아동과 부모 각각이 체득한 전시에 관한 선호도, 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터뷰 질문이 설정되었습니다.

We set the research issues in the light of preference and study from what parents and children learned. According to these issues we chose some questions for interview.

<P.35>

관람객 인터뷰에 따른 연구결과는 행동, 인지, 정서와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습니다.

We classified a result of visitor interview research as three parts, behavior, recognition, emotion.

<P.36>

인터뷰 분석의 기준이 된 연구문제는 <아동의 학습>, <아동이 좋아한 전시물>, <아동의 새로운 학습에 기여한 전시물>, <부모가 바라본 아동의 학습>, <부모의 학습>과 같이 5개로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인터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children’s learning>, <children’s favorite exhibit>, <exhibit that contributed to children’s new learning>, <children’s learning from parents’ sight>, <parents’ learning> were chosen as research issues. According to those five, we analyzed the interview results.

<P.37>

아동들은 인지면에서 가장 많은 학습을 했다는 응답이 33%, 정서면에서 가장 많은 학습을 했다는 응답이 3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지면에서는 신체노화를 가장 크게 인식했습니다.

The children response rate for saying that recognition terms helped learning a lot was 33 percent and there was 30 percent for emotion terms. In terms of recognition, the most thing they recognized was body aging.

그 중 유아는 조부모에 대한 그리움,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인 면에서의 학습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초등은 신체적 노화와 같은 인지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학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Among children, preschooler mostly responded that emotion terms such as longing and joy toward grandparents helped learning a lot. On the other hand, schoolchild mostly responded that recognition terms such as body aging helped learning a lot.

유아와 초등을 포함하여 아동들이 가장 선호한 전시물은 '송 바람편지'로 조사됐습니다.

Exhibit that children including preschooler and schoolchild preferred the most was 'Whoosh wind letter'.

또한 아동이 새롭게 학습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부모의 신체적 어려움이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Also the child response for new learning was mostly physical difficulties of grandparents, rated as 30 percent, the highest percentage.

그 중 유아는 전시를 통해서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시각의 노화를 새롭게 학습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은 노인의 바늘 꿰기와 같은 촉각의 노화를 새롭게 학습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Preschoolers most responded that they got the chance to learn sight aging such as glaucoma, cataract through exhibition. Schoolchild most responded about tactile aging such as grandmother's threading a needle.

<P.38>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Synthetically speaking of research results,

첫째,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의 '조부모' 기획전은 아동과 부모의 학습에 기여합니다.

Firstly, 'Grandparents' exhibition of Gyeonggi Children's Museum contributed to learning for both children and parents.

둘째, 같은 전시임에도 대상에 따라 학습내용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Secondly, though it was same exhibition, there was difference in learning content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아동은 신체적 노화에 대해 가장 많이 학습했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는 자신의 노년, 가족, 자신의 부모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While children responded that they learned body aging most, parents responded that they learned their parents, family and their old age most.

셋째, 아동의 학습과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의 학습은 둘 다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이 가장 높았습니다.

Thirdly, children's learning and children's learning from parent's sight rated the highest in terms of recognition learning.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ut there was difference in contents.

아동은 신체적 노화를, 부모는 인생단계로 파악했습니다.

Children recognized body aging, whereas parents recognized the stage of life.

이 점에 있어서는 추후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In this regard, further research would be required.

넷째, 이번 전시를 통해 아동이 학습한 것, 아동이 새롭게 학습한 것은 동일하게 '신체적 노화'에 관한 것입니다.

Fourthly, body aging was chosen on both children's learning and children's newly learning by this exhibition.

그러나 학습한 세부내용에서 유아와 초등이 차이를 보이며, 이는 발달에 따라 관심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합니다.

However, there was difference for detailed contents of learning between preschooler and schoolchild, this came from different interest depending on development.

<P.39>

'조부모' 기획전과 그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한 한국 어린이박물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explain development direction of Children's Museum in Korea based on a result of 'Grandparents' exhibition and research.

첫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기여하며, 가족문화를 창출하는 장으로서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First, Gyeonggi Children's Museum should contribute closely to the community and be strengthened as creating family culture.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2015년 관람객 50만명 중 80%가 경기도민에 해당됩니다. 개관 이래 29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의 아동과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조부모 동반 관람객에게 3세대 교감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80 percent of half a million visitors of Gyeonggi Children's Museum in 2015 were from residents in Gyeonggi-do. Since Gyeonggi Children's Museum opened, 2.9 million people visited and we contributed to children and creating family culture. Also we are pulling our weight to make visitors share three-generation's feeling especially for visitors with grandparents of which portion was 25 percent of total visitors

<P.40>

둘째, 어린이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아동과 가족의 학습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Second, it is needed to endeavor and research for informing that children's museum as non-profit organization contributes to learning of children and family.

- 한국의 어린이박물관은 2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박물관 학계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박물관은 아동, 가족의 학습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 Even though children's museum in Korea has a history of twenty years, it is still uncertain what children's museum is for in the academic world of museum.

<P.41>

본 사진은 2012 년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 1 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했던 국제세미나입니다.

This photo shows international seminar celebrating one year of opening Gyeonggi Children's Museum in 2012.

<P.42>

2014 년 ACMC 컨퍼런스 개최 모습입니다.

This photo was taken when ACMC conference was held in 2014.

<P.43>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아동들이 미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습의 장입니다.

Gyeonggi Children's Museum represents a field of learning for children to help prepare future world.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가족의 장이며, 아동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매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Furthermore, it is a field of family connecting traditi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Gyeonggi Children's Museum should take a role as a field of learning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 of new perspective, new media, and new world for children.

또한 가족의 평화는 한국의 평화, 북한의 통일로 이어져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lso, I pray that the peace in our families will influence the peace of our nation, and that i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최근 한국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으나 인간의 창조력은 인공지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Recently the battle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shook the whole world. But creativity of human being has way beyond power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그 파워풀한 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열려있습니다.

It is up to children to take this unlimited power and lead the future.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이 공헌하기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I finish my presentation, hoping that children's museum contributes as a field that helps children use their creativity.

감사합니다.

Thank you.